

활기찬 노년 위한 '지금은 실버시대'

BBS 교계 최초 노인전문 프로그램
목판화가 황남채 씨 진행 말아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인층 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때문에 노인층을 배려한 프로그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했다.



실버시대 진행을 맡은 목판화가 황남채 씨.

불교방송이 이런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설해 눈길을 끈다. 매주 월~금요일 4시 5분부터 35분간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지금'은 실버시대(연출 황재훈)는 이른바 675세대라 부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계 최초 실버시대를 위한 방송이다. 진행은 목판화가이자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황남채 씨(우리는선우 이사)가 맡았다.

동화 강사, 광고모델로 활동중인 실버모델 등이 나와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펼친다. 또한 한의사 의사 등이 출연 건강 상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전화 연결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여기에 어르신들의 봉사·취업 등의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는 어르신들이 뜻 깊은 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실버시대 연출을 맡은 황재훈 피디는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강 여가생활, 노인 취업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판화가 황남채 씨의 진행으로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행을 맡은 황남채 씨는 라디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진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실버세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육신이 되어도 마음은 늘 청춘입니다. 그래서 실버보다는 골드세대라고 말하죠. 어르신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송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실버시대는 △인생은 아름다워(월) △ 지금은 백세시대(화) △도전 취업시대(수) △건강하게 삽시다(목) △힐링과 스트리가 있는 선시 여행(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코칭 강사, 구연

정혜숙 기자

연말 맞아 나눔·힐링 공연 '흔흔'

2013년 송년음악회 '다채'

추운 겨울이 왔다. 몸도 마음도 공공 얼어붙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악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연말을 맞아 나눔과 힐링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 어려울수록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어 주다보면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지 않을까?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콘서트에서 수화사랑 음악회까지 다양한 공연을 모았다.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흔흔한 공연이 마련됐다. 사진은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불자가수 라마와 개그맨 오종철 씨가 마련한 '모발나눔콘서트'.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수화사랑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 되는 세상을 수놓는다.

연화원 이윤신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문화행사를 통해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자 마련된 음악회다. 또한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불청의 '행복의 씨앗을 찾아 떠나는 템플스테이 음악여행'. 연말에는 '종로 경찰서 경찰·전의경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마련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연화원의 수화사랑음악회.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12월 15일 오후 2시 전곡비구니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이준형·김양희가 '연꽃 피어오르리'를, 능인스님이 '소리 꽃'의 무대를 펼치며 해상스님 등이 우쿨렐레를 연주한다. 또한 이창환(건아들이)이 '짧은 미소'를 임희숙이 '진정한 몰랐어'를 고은이 MTM 아가펠라를 연주하며 수화사랑합창단이 '무조건, 사랑을 위하여'를 연주한다. 또한 손리가 출연해 체중관리법을 설명해준다. 이밖에도 자비의 쌀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더한다. (02)2202-5831

연화원, 10번째 수화사랑음악회
라마, 소아암 환우 돕기 콘서트
풍경소리 청소년 송년 음악회

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리는 재능나눔콘서트 모나콘은 가수 라마와 개그맨 오종철이 이끄는 텔레콘서트로 소아암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특수가발을 선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수 라마는 "우연히 병원 공연을 갔다가 소아암 어린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 이후 개그맨 오종철 씨와 가발 100개 기부로 목표로 매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공연료와 기부금을 모아 현재 52개까지 가발을 기부했다. 매달 200석 규모로 진행했지만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12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가수 장혜진 씨 공연은 물론 인기가수 김미경 씨도 출연해 무대를 펼친다. 1544-1591

다. '종로 경찰서 경찰 및 가족, 전의경을 위한 힐링 콘서트'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홍보관에서 12월 26일 오후 7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가수 김현성씨와 노래패 움직이는 꽃이 법정스님의 산문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를 음악에 담아 들려준다. (02)738-1920

이밖에도 영종불교회관(주지 자명)과 (사)170원의 생명나눔(회장 이 만기)에서는 12월 15일 오후 3시 영종도 하늘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영종 주민과 불자들을 위한 '제 2회 자명 스님과 함께하는 뽕큐뵤다 콘서트'를 연다.

'뽕큐뵤다콘서트'는 1부 인도불교전공철학박사 백도수 거사의 '아름다운 치유'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펼치며 2부에서는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010)-9343-300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무여불'

12월 11~17일 경인미술관서



이상배의 '관세음보살'

제 23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무여불(無女佛)'이 12월 11~17일 경인미술관 2전시관에서 열린다. '뜻을 펼치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에서는 김창균, 강순형, 이상배 등 40여 명이 회원들이 참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창균의 '부터가 무연고' △이상배의 '관세음보살' △박경규의 '달빛에 비친 숲' △양선희의 '지권인' △서철교의 '어린관음' △김석근의 '나무상'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불교미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다. (02)733-4448

정혜숙 기자

김경미 금니 사경전

'금니 김경미 금니 사경전'이 12월 30일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열린다. 작가 김경미 씨는 이번 전시에서

〈묘법연화경〉〈법화경변상도〉〈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금강반야바라밀경〉〈지장경〉〈무구정광대다라니경〉〈불설아미타경〉 등을 전통사경 기법으로 제작했다. 또한 창작 금니사경도 준비했다. (02)2266-6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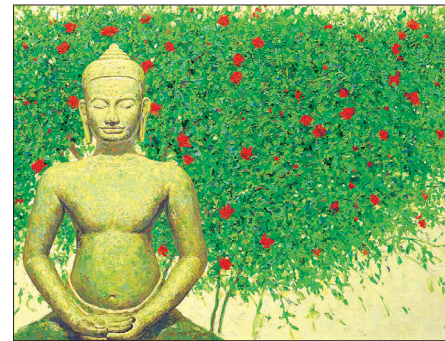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붓다의 미소 꽃으로 피어나다

조재익 개인전...12월 14일까지 아이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꽃으로 피어났다. 조재익의 개인전 '붓다 꽃이 피다'가 12월 14일까지 문화예술 나눔터 아이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미얀마에서의 출가 경험과 그간 수행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세계 각국의 불상의 미소에 녹여냈다. 작가는 부처님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하

고자 불도에 꽃을 결합해 작품을 완성했다. "한국 중국 캄보디아 태국 인도의 불상과 불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냈습니다. 이 불상을 만든 예술가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신심을 다해 만들어진 불상들은 그곳의 사람들을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재익의 '붓다-봄의 정원'

오랜 시간 위빠사나 수행을 해오던 작가는 2007~2008년 미얀마에서 비구계를 받

고 수행하다 환속해 다시 붓을 들었다. 현재에는 조사선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작가는 자신의 수행경험을 작품 속에 녹여 내고자 한다. "앞으로도 불도와 다른 자연물이 결합된 작품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붓다의 얼굴에 녹여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니까요."

작가는 향후 대형 사찰에서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02)2246-0071

정혜숙 기자

(사)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동참 감사의 인사말씀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5천여 훈련병들에게 설법하고 있는 석월인 종정 스님

귀의삼보하옵고

입동지절에 종도여러분들의 사내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승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에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위문법회에서 5천여 훈련병들에게 위문품과 함께 호국연무사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사기진작을 복돋아 주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신 종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위문법회를 병행하오니 종도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어 호국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국연무사 현조 법사님과 원담 사무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종도 여러분들의 사내에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25일

종 정 석 월 인 화 남, 총무원장 법 수 합 장

- 동참 종도스님 -

- ◎ 종정 월인 대종사 ◎ 원로원장 해공 대종사 ◎ 원로의원 동하 대종사
- ◎ 원로의원 운성 대종사 ◎ (전)월인 문도장 법산 스님
- ◎ 종회의장 혜륜 ◎ 총무원장 범수 ◎ 포교원장 도안 ◎ 총무부장 도일
- ◎ 서울총무원장 정행 ◎ 부산총무원장 봉선 ◎ 대전총무원장 범지
- ◎ 울산총무원장 도성 ◎ 대구, 경북총무원장 지운 ◎ 경남총무원장 월곡
- ◎ 강원총무원장 부루나
- ◎ 성주암 주지 범등 ◎ 무량사 주지 고시근 법산 ◎ 일원사 주지 보련
- ◎ 고성 서래암 주지 범해 ◎ 재무원장 무착 ◎ 몽불사 주지 법관
- ◎ 문수사 주지 문수 ◎ 진불암 주지 무구 ◎ 보타암 주지 법전
- ◎ 용암사 주지 선궁 ◎ 총무원재직 무찰 ◎ 전혁란(구미) ◎ 정광 ◎ 혜전
- ◎ 보명 ◎ 범성 ◎ 묘전 ◎ 묘운 ◎ 묘주 ◎ 운정사 주지 도성 ◎ 도광
- ◎ 선조 ◎ 선견 ◎ 선웅 ◎ 혜언 ◎ 도안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177-15

전화 : (051)556-0278, (051)552-8554 전송 : (051)556-8551